

컴퓨터통신의 교육, 연구 및 업무 활용

— 해부학사랑 운영 1년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

Use of Computer Telecommunication for Research and Education

— Running ANATOMY Forum in Korean BBS for 1 year —

손현준, 이봉희¹, 유영현², 정민석³, 이원택⁴, 박정현⁵, 양영철⁶, 정구보⁷, 김동환⁸, 황건⁹, 이운성¹⁰ 박경한, 황덕호, 백상호

경상대학교¹, 동아대학교², 아주대학교³, 연세대학교⁴, 영남대학교⁵, 인제대학교⁶, 충북대학교의과대학 해부학교실⁷,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⁸ 해부학교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¹⁰, 해부학교실

Hyun Joon Sohn, Bong Hee Lee¹, Young Hyun You², Min Suk Chung³, Won Taek Lee⁴, Jeong Hyun Park⁵, Young Chul Yang⁶, Gu Bo Chung⁷, Dong Hoan Kim⁸, Kum Hwang⁹, Yoon Seong Lee¹⁰, Kyeong Han Park, Duck Ho Hwang, Sang Ho Baik

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¹; Dong-A University²; Ajou University³; Yonsei University⁴; Yeungnam University⁵; Inje University⁶; Chungbuk National University⁷; Department of Anatomy, Oriental Medical College, Dongkuk University⁸;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⁹;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¹⁰ and 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computer-based electronic academy of anatomy as the ideal goal", we made this concept to a reality by establishing ANATOMY forum in a nationwide bulletin board system. The concept of ANATOMY forum was designed at a small group meeting of members in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 on October, 1992.

Beginning on October 8, 1993, ANATOMY forum offers bulletins, file transfers and citizen band emulation for the anatomist as well as anyone who wants to join. We are providing library area for file transfer with four different library sections—EDUCATION, RESEARCH, INFORMATION OF ACADEMIC SOCIETY and ANATOMY IN GENERAL. In the bulletins we have two kinds of message area. One includes five message sections for the use of all members, consisting of NOTICE, LIBRARY INFORMATION, FOR MEDICAL PERSONNEL, QUESTION & ANSWER and MISCELLANEOUS NOTEBOOK. The another message area is for the executive use of anatomist, including five sections—EDUCATION, LABORATORY, RESTING PLACE, ACADEMIC SOCIETY and CONFERENCE ROOM.

Currently we have 115 useful files in the library section, and more than 4,000 informative messages in the bulletins. The number of members of ANATOMY forum is now over than 1,000 including 48 anatomists of the most medical schools in Korea. The majority of the members are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students. The ANATOMY forum is a group of people who wants to exchange ideas and informations on medical science and anatomy—related topics. (Journal Korea Society Medical Informatics 1:41 ~ 48, 1995)

I. 서론

양방향 정보전달성을 가진 편리하고 신속한 정보교류의 수단으로써 컴퓨터통신은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늘

어나고있는 추세이다. 의학분야에서도 방대한 양의 의학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컴퓨터통신의 활용이 점차 증가되고있는 추세이며 [1], 현재 임상의학분야에서의 컴퓨

주소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의대 해부학교실
전화번호 : 02) 740-8212, 8213

터통신의 이용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병원행정 및 원무입구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진단시스템에 도입되고 있다[2]. 외국의 경우 지역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의료정보서비스, 장애자를 위한 전자게시판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업무에 도움을 주며 재교육을 담당하는 전자게시판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13, 14, 15). 또한 학회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진진명을 운영하여 교육 및 업무에 이용하고있는 경우도 있으며[16], 특히 미국 의료정보학회(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는 미국 최대의 컴퓨터통신 서비스인 CompuServe에 전문 의료인들의 교류를 위한 MEDSIG라는 동호회 형태의 컴퓨터통신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17].

외국에서 구축해놓은 의학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바 국내 의학계에서도 학회지 전산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에서는 일찍이 컴퓨터통신이 문헌 검색에 활용[18] 되었을 뿐 아니라 유전자 검색 등 동물실험을 위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컴퓨터통신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19, 20].

컴퓨터통신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컴퓨터 애호가들의 욕구에 의해 지역 사설 전자게시판 시스템(local bulletin board system)이 시작되었고 대형 컴퓨터통신(nation wide BBS) 서비스들이 생겨나게 되었다[21]. 이에 비하면 국내 컴퓨터통신의 역사는 짧다. 1985년 10월 DACOM(한국 데이터통신 주식회사)에서 서울 주요 우체국에 시범적으로 생활정보 서비스를 실시하였던 것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3]. 이후 1987년에 이르러 DACOM의 한글 전자사서함이 보급되면서 "정보화사회를 위한 사랑방 모임" 같은 컴퓨터통신 마인드 확산을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으며[4], 전국에 걸쳐서 많은 지역 사설 전자게시판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국내 대형 컴퓨터통신 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향상을 재촉하게 되었다. 1988년 10월에는 Hitel(한국 PC통신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컴퓨터통신 서비스)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경KETEL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초창기의 Host 시스템은 접속가능한 사용자 수가 극히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단순 정보처리시스템에 BBS 기능과 여러가지 정보서비스 메뉴를 추가하게 되어 시스템 구조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이 노출되었으나 점차 개선되었다[5].

1987년 수십 명에 불과하던 컴퓨터통신 사용자 수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한국PC통신의 하이텔 서비스에 가입자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데이콤의 천리안 서비스 가입자는 2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6].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화해

온 국내 대형 PC통신서비스들은 최근에 인터넷(Internet) 연동 서비스를 개시하게되어 바야흐로 PC통신의 국제화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7].

컴퓨터의 급격한 보급확대 및 사용자들의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지난 5년간 국내에서는 공중전화망을 이용한 컴퓨터통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의학 및 의료계의 컴퓨터통신 공간 또한 다각적으로 모색되어 왔다. 의료인이 개설한 사설BBS로는 1989년 부산의 치과외사인 김원효에 의해 짧은 기간동안 김원효BBS가 운영된 적이 있다는 기록은 있으나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없다[8]. 1991년 4월 내과의사인 이경용에 의해 메디넷(Medi-Net)이라는 수도권 지역 사설BBS가 탄생되었는데 전산 전문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져 의학전문 BBS로서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메디넷에서 활동하던 당시 흉부외과 전공의였던 송우철에 의해 의사들과 의과대학생만을 위한 본격적인 의학전문 사설 BBS인 Med-Info가 1991년 10월에 개설되었다[9]. 사설 BBS의 경우 독립적인 시스템을 추구하였는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나 시내전화권 밖의 지역에서는 접속하는데 부담이 크다는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1990년 후반부터 국내 대형 PC통신 서비스에 의학 관련 공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천리안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의 모임으로 MODU라는 동호회가 개설되었고, 하이텔에서는 예방의학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예방의학 동호회(PREMED), 공중보건학자들의 공중보건학사 통신(PHDCC), 가정의학 의사들을 중심으로 가정의학 동호회(FAMILY)가 문을 열었으며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한의사 컴퓨터통신 동호회, 의과대학생들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생 모임(MEDICAL)이 개설되었다[10]. 1993년 10월 8일에는 대한의학협회 정보통신망(KMAIN)이 하이텔에 폐쇄사용자그룹(Closed User Group)으로 개설되었고, 같은 날 해부학사람(ANATOMY)이 동호회(Forum: Special Interest Group) 형식으로 개설되었다. 이렇게 같은 시기에 출발한 대한의학협회 정보통신망과 해부학사람을 비교를 함으로써 해부학사람의 운영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II. 본 론

본 조사는 저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 대한 관찰 및 참

여를 통하여 얻은 경험과 사료를 토대로 하였다. 회원에 대한 자료는 운영자 메뉴에서 볼 수 있는 회원의 정보에 근거해서 분류하였으며 해부학사랑 개설 1년째가 되던 1994년 10월 7일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이용시간 등을 포함한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는 하이텔의 동호회 담당자가 제공한 하이텔 내부 집계에 근거하였다.

1. 개 설

1992년 10월,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에 모인 해부학 선생 몇 명에서 해부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컴퓨터통신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 교환이 있었고 1993년 1월부터 서울의내 해부학교실 백상호 교수를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컴퓨터통신 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전국의 해부학 전공인이 쉽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점에서 대형 PC통신 서비스 내에 동호회 형식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있었고 가입자 수가 많으면서 비교적 이용료가 저렴한 하이텔에 개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3년 4월 12일 하이텔의 동호회 담당자와 협의한 결과 요건만 갖추면 개설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개설에 필요한 절차를 알게 되었다. 4월 15일 체질인류학회 학술대회에서 동호회 개설에 관한 안내문과 가입신청서를 배부하면서 개설의 취지를 알렸다. 1993년 5월 1일에 동호회 발기인으로 34명을 모으게 되었으며, 1993년 5월 22일 백상호(서울의대), 유영현(동아의대), 이봉희(경상의대), 이원택(연세의대), 정구보(충북의대), 정민석(아주의대) 교수 등이 모여 동호회 이름을 해부학사랑으로 정하고 운영진을 정해 일을 분담하기로 하였는데 대표시삽으로 백상호 교수가 추대되었다. 1993년 5월 31일 동호회 신청서를 하이텔에 접수시켰으며, 7월 30일에는 초기화면과 차림표를 정하였는데, 8월 9일이 당초 예정된 개설 일자였으나 하이텔 측의 사정으로 연기되었다. 1993년 10월 2일, 하이텔 동호회 담당자로부터 10월 8일에 해부학사랑이 개설된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k2anat라는 시삽 ID와 동호회 관리 지침을 수록한 파일을 전송 받았다. 1993년 10월 7일, 하이텔에 해부학사랑 초기화면과 차림표가 떠올랐으며 시삽(System Operator, 주운영자), 부시삽(Assistant Sysop, 부운영자), 정회원, 손님에 따른 동호회 관리 권한을 조정하였고 다음날인 10월 8일 해부학사랑이 예비동호회로 개통되게 되었는데 개설 첫날 38명의 회원이 등록하였고 1994년 1993년 10월 19일에 회원 100명을 확보하였다. 1994년 1월 해부학사랑의 상징 그림

(Fig 1)을 붓모를 통해 채택하게 되었다. 예비동호회로 개설된 해부학사랑은 이후 하이텔의 운영 실적 심사를 거쳐 1994년 2월 1일 정식동호회로 승격되었다. 1994년 10월 2일에는 회원수가 1000명을 돌파하였다.

2. 운 영

해부학사랑은 국내 최대의 컴퓨터통신 서비스인 하이텔 안에 동호회 형식으로 개설되어 운영해오고 있다. 하이텔에는 모두 150여개의 동호회가 내용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해부학사랑은 "건강/의료"라는 디렉토리 속에 있다. 동호회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개적인 컴퓨터통신 공간으로 열린모임 이라고도 불린다. 해부학사랑은 해부학 전공인들이 중심이 되어 개설한 것이지만 동호회의 특성상 컴퓨터통신 공간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서비스 회사는 비전문인에게 개방적인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며 동호회 관리 운영에 다소 간섭하는 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개방적인 활동이 해부학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데,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비전공인을 위한 교육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노력과 함께 전국의 해부학 전공인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 홍보하였다. 1993년 10월 22일 조신의대에서 열린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에 해부학사랑 소식지 첫호를 만들어 배포하였고, 1994년 5월 14일 중앙의대에서 열린 대한체질인류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소식지 2호와 함께 컴퓨터통신 시범을 보이는 등 해부학 전공인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였다.

운영자들은 매일 1회 이상 접속하여 신규회원의 가입신청을 처리하고 각자 맡은 게시판을 관찰, 참여하고 있다. 회원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운영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게시물 정리는 지양하고 있고, 통신선상에서 게시된 글과 사랑방(온라인 대화실)을 통해서 만나는 온라인 활동 외에 연 2회 정기적으로 회원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 온라인 대화 기능을 이용한 운영자 전자회의와 함께 운영자 모임을 연 2회 이상 가지고 있다.

3. 이용하는 방법

해부학사랑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컴퓨터, 모뎀, 공중전화망에 연결된 전화, 컴퓨터통신 프로그램이다. 이것이 갖추어 졌으면 이들을 적절히 구동하여 하이텔 접속 전화번호

(01410 등)로 접속한 뒤 이용자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하이텔 이용자가 아니라면 먼저 하이텔 이용 신청을 해서 이용자 번호와 비밀번호를 지정해야 한다. 하이텔에 들어온 후 안내화면에 제시된 번호에 따라 단계적으로 “동호회”, “건강/의료”, “해부학사랑”으로 찾아가도 되고, go anatomy라고 입력하면 하이텔 내무의 어디서나 바로 해부학사랑에 들어가게 되어 초기화면(Fig 2)을 만나게 된다.

4. 차림표

해부학사랑의 초기화면은 Figure 1에 있다. 하이텔에서 해부학사랑에 부여한 영문자 동호회 명칭인 ANATOMY를 부각시키고자 하였고 문자위주의 제한된 시스템에서 무리없이 활용할 수 있는 아스키코드를 이용하여 해부학사랑을 상징하도록 도안하였다. 해부학사랑의 초기화면에서 ENTER 키를 누르면 Figure 2와 같은 차림표가 나온다. 차림표에는 모두 10개의 큰방이 있는데, 7번 방을 해부학 전공인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방은 모든 회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번 방은 새로이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절차, 탈퇴하는 절차, 회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번 방은 공지사항을 올려놓는 곳으로 해부학사랑의 운영방침, 차림표의 바뀜, 새 운영진의 위촉, 하이텔과의 연락사항 결과, 행사 안내, 운영자가 회원에게 부탁하는 내용 등을 싣고 있다. 3번 방은 회원이 운영진에게 온라인 편지를 통해 건의를 하는 창구인데, 주요 건의사항은 운영진 회의에서 토의할 대상이 된다. 4번 방은 전자회의실이라고도 불리는 온라인 대화실로 컴퓨터를 통하여 대화하는 공간이다. 5번 방은 비교적 분량이 큰 해부학 관련 정보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회원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파일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모든 회원이 파일을 제공할 수 있는데 제공된 파일은 운영진에 의해 검토된 후 다른 회원이 받아 갈 수 있도록 이곳에 등록시키게 된다. 문서자료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으며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6번부터 10번까지의 방은 게시판 형태의 공간이다. 6번 방은 정보게시판으로 회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자료실에 비치된 중요한 자료에 대한 안내 또는 자료실에 올릴 성격은 아니지만 회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게시하는 공간이다. 7번 방은 해부학교실이라 이름지어 졌는데, 해부학 전공인들만을 위한 공간이다. 8번 방은 의료인 쉼터로 해부학사랑의 회원 구성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게시판이다. 9번 방은 모든 회원이 함께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며 10번

방은 해부학과 관련된 실문과 대답을 위한 공간이다. 해부학사랑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손님)이라도 10번 게시판에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각 게시판마다 두 명의 부운영자를 게시판 관리자로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Fig 1. The emblem of the ANATOMY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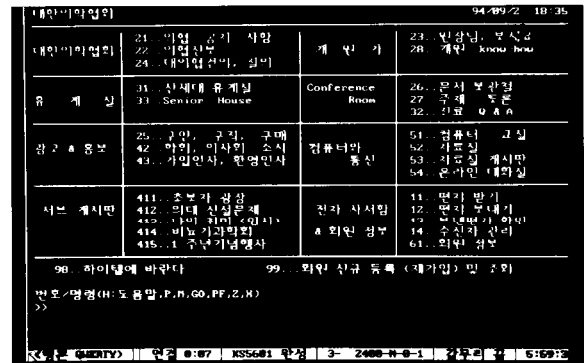


Fig 2. The notice screen of the ANATOMY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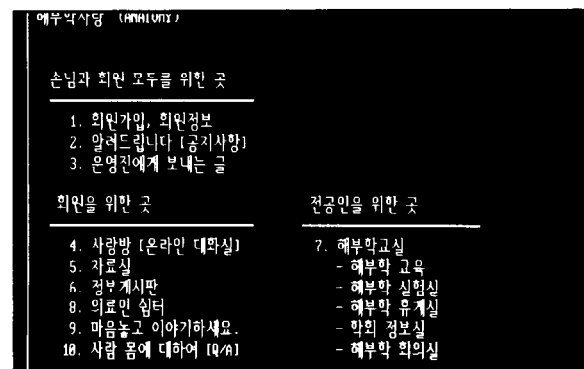


Fig 3. The forum top me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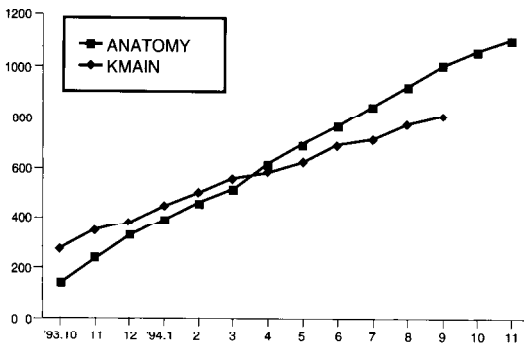


Fig 4. The trends of increase of the members: comparison between the ANATOMY forum and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formation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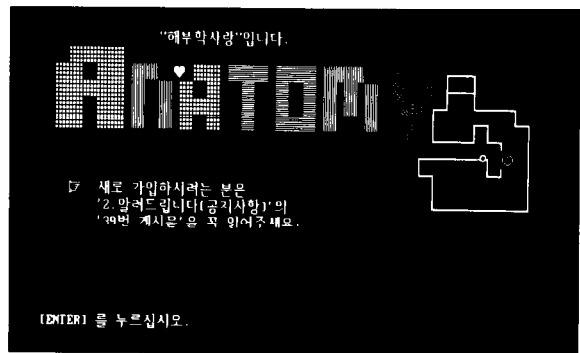


Fig 7. The top menu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formation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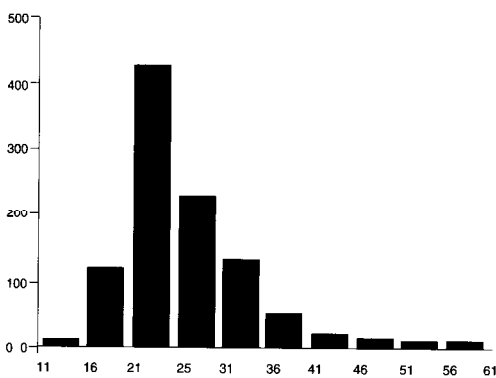


Fig 5. The age distribution of the members of the ANATOMY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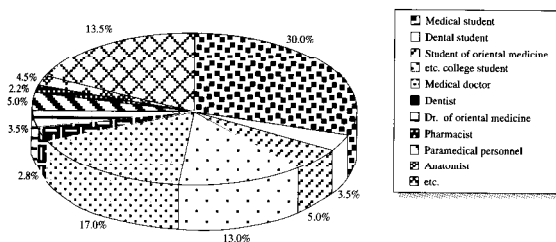


Fig 6. The occupational composition of the members of the ANATOMY forum.

5. 회원

1993년 10월 8일 해부학사랑이 처음 문을 연 이후 1994년 12월 8일까지 가입한 총 회원 수는 1126명이다. Figure 4에서 회원 증가 추이를 대한의학협회 정보통신망과 비교하였다. 월 평균 80명의 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개설 초기부터 꾸준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회원의 연령별 분포를 Fig 5에 나타내었다. 11세부터 60세까지 있으며 20대와 30대의 회원이 82.1%를 차지하고 있다. 회원의 직업별 분포에서는 의학 및 의료 보전에 관련된 직업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Fig 6). 해부학을 전공하는 회원 수는 46명(4.5%)인데 비해 임상 의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들이 236명(23.3%)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 및 간호사와 준의료 종사자(방사선기사, 임상병리사 및 물리치료사)까지 합친다면 직장을 가진 회원 중에서 72%를 차지하게 된다. 의학과 관련된 전문동호회로 분류된 해부학사랑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러한 의학 편향성은 학생회원에 있어서도 현저히 나타난다. 대학생의 전공 분포를 보면 의과대학생들이 매우 많다. 의대생, 치대생 한의대생을 합치면 전체 대학생 회원의 75%를 차지한다. 기타학과 대학생들로 분류한 112명의 회원 중에도 약학, 간호학, 보건학, 수의학, 및 생명과학 전공 학생이 많았으며 의학과 무관한 전공을 가지는 학생 회원의 구성으로는 단연 컴퓨터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많았다. 직업을 가진 회원 중에서 컴퓨터 관련 종사자의 수는 26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교육계에 종사하는 회원이 23명으로 생물학, 화학, 의공학, 산업공학, 교육학, 체육학, 미술, 음악을 전공하는 현직 교수 및 교사들이 있어 학문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여러 전문인들이 해부학사랑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 자료 분석

1) 자료실

자료실의 자료들은 내용별로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 작은 디렉토리(1.종합, 2.교육자료, 3.연구자료, 4.학회자료, 5.해부학일반)에 보관되어 있다. 종합에서는 모든 자료들이 등록된 시간 순서대로 모아져 있어서 회원들은 한꺼번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등록된 자료의 수는 115건으로 건당 평균 68명의 회원이 전송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내용별로는 교육자료에 가장 많은 79건의 자료 등록이 있었다(Table 1). 대부분의 자료는 문서 파일이고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한 의과대학생이 직접 만든 골학 교육용 프로그램 OSTEOLOGY를 포함하여 8건이 있다.

Table 1. The number of files in the Library area

Library section	Number of files (Average count of download)	
EDUCATION	78	(89.4)
RESEARCH	11	(27.6)
ACADEMIC SOCIETY	10	(20.2)
ANATOMY IN GENERAL	16	(23.2)
TOTAL	115	(68.3)

2) 일반 게시판 영역

4번, 6번, 8번, 9번, 그리고 10번 게시판을 회원 모두를 위한 게시판으로 해부학전공인들을 위한 7번 방과 구별하기 위해 일반 게시판 영역이라고 분류하였다. 일반 게시판 영역에 올라온 전체적인 게시건수는 3,257건으로 대략 10,000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을 가지고 있다. 9번 게시판이 게시건수가 2,220건으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The number of posted messages in the general message area

Message section	Number of posted messages
NOTICE	61
LIBRARY INFORMATION FOR MEDICAL PERSONNEL	264
MISCELLANEOUS NOTEBOOK	430
QUESTION & ANSWER	2220

3) 전공인 게시판 영역 - 해부학교실

7번 게시판인 해부학교실은 해부학 전공인을 위한 전용 공간

이다. 해부학교실은 해부학 교육, 해부학 실험실, 해부학 휴게실, 학회 정보실, 그리고 해부학 회의실로 모두 5개의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부학 교육 게시판에서는 학생교육에 쓰는 교재에 관한 정보나 강의 방법, 실습, 시험 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해부학 실험실에서는 전자현미경, 사진 촬영술, 영상분석기, 실험 동물에 대한 정보들이 있었으며, 해부학 휴게실에서는 자주 만나볼 수 없는 전공인들끼리 안부 인사를 나누고, 신변 잡기, 학교소식과 같은 가벼운 글들이 232건으로 해부학교실 전체에서 가장 많은 게시건수를 기록하고 있다(Table 3). 학회 정보실에서는 해부학용어 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있는 한글 용어에 대한 글과 학회 참가할 때 필요한 정보 그리고 의사국가고시에 대한 정보 등이 있다. 해부학 회의실에서는 여러가지 토론이 있었는데, 해부학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들과 해부학 용어에 대한 토론 등이 있었다.

Table 3. The number of the posted messages in the executive message area for the anatomist

Message section	Number of posted messages
ANATOMY EDUCATION	90
ANATOMY LABORATORY	76
RESTING PLACE	232
ACADEMIC SOCIETY	72
CONFERENCE ROOM	125

7. 이용량

하이텔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집계한 해부학사랑의 이용량은 월평균 이용회수 5,322회에 월평균 이용자 수가 3,593명이었고 이들이 해부학사랑에 머문 시간은 월 평균 62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III. 고 안

해부학사랑이 취하고 있는 열린모임 형식은 특정인들만이 폐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닫힌모임(closed user group)과 대비되는 형식이다. 대한의학협회 정보통신망은 폐쇄사용자 모임으로 대한의학협회에 등록된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월 30만원의 시스템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반면[11], 해부학사랑은 시스템 사용에 대한 비용이 없다. 또한 시스템의 기능 면에서도 동호회로 제공되는 시스템

이 더 안정적인 서비스들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서비스 회사가 폐쇄사용자그룹 서비스를 시작한 경험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의 많은 의학관련 컴퓨터통신 모임들이 뜻이 맞는 젊은 의사들 중심으로 시작되고 다소 무계획적으로 운영되던 경향이 있었는데, 가정의학 동호회의 경우 1993년 12월에 폐쇄되는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동호회 형태의 의학 관련 컴퓨터통신 모임들이 전반적인 활기를 잃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때까지 컴퓨터통신 모임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스스로 컴퓨터통신의 매력에 이끌려 들어온 젊은 층의 의사로 개인 차원의 운영이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이 그러한 침체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12].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학협회가 비교적 배타적인 통신망이라 할 수 있는 폐쇄사용자그룹 형태로 임상각과의 컴퓨터통신 공간을 통합적으로 제공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된다(Fig 7).

해부학사람은 개설 전부터 비교적 계획성 있게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륜이 높은 중견 해부학회 회원에서 신예 회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 동안 해부학 전공인들을 향해 많은 홍보활동을 하여 이제는 지역적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하이텔 이용자번호(ID)를 가지고 해부학사람에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학회 초록 접수와 같은 여러가지 학회 업무연락 수단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에는 해부학 전공인들 간에 서로 나누고 싶은 정보나 신변의 소식 같은 것들이 많았어도 전국의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서로 교류하는데 많은 제약이 받고 있었다. 1년에 두어 번 학회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이런 갈증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다소간 해결하여 보고자 출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전공인들의 컴퓨터통신 공간을 통해서 많은 해부학 전공인들이 교류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실례에 쓰는 시약을 상호 교환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사례도 생기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전공인들이 교류함으로써 고가의 실험용 시약이나 설비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회 회원간에 공동된 관심사 별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부학 전공인 이외의 임상사나 다른 분야의 기초의학 전공인들과의 교류가 더 많아진다면 공동된 의학 관련 주제에 대해 더욱 가치 있는 아이디어와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늘어 컴퓨터통신의 교육적 활용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데[22], 해부학사람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의대생들이 가입되어 있어서 강의실에서 다 하지 못한 교육적 활동이 가능하다. 국민학생에게 필요한 해부학 지식에서부터 의대생과 의사에게 필요한 해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 구조를 가지는 교육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부학사람의 회원 중에는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관심이 있는 컴퓨터 업계에 종사하는 회원이 있어서 해부학 교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일반 동호회와는 다른 전문학술 동호회가 이처럼 많은 회원 수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과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볼 때 컴퓨터통신 이용자들이 전문적인 학술 동호회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컴퓨터통신 공간을 통해서 해부학 전공인들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과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1. 김인식 : 원격진료 시범 사업 추진방안. 대한의료정보학회 제8차 춘계학술 심포지움, 43-55, 1994
2. 김선호 : Emergency Teleradiology (Medical Image Transmission) System의 개발과 운용. 제8차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65, 1994
3. 김일환, 박무홍 : 국내의 PC통신. KRNET'94 발표자료집 525-543, 1994
4. 이응태 : 정보화사회를 생각하는 사랑방. DACOM 서울. 29-63, 1987
5. 유경희 : PC통신을 통한 가상사회. KRNET'94 발표자료집 485-514, 1994
6. 김용순 : 컴퓨터 통신망의 발전가능성. 제1차 대한의학협회 정보통신망 학술대회, 48 50, 1994
7. 김태경 : 인터넷과 PC통신. KRNET'94 발표자료집 515-524, 1994
8. 박순백 : BBS 전자게시판. 집문당, 서울. 29-38, 1989

9. 송우철 : 의학전문 비비에스의 가능성. 의료정보학회 제6차 학술대회, 143-148, 1992
10. 현용권 : 한컴등 통신진료실에 나타난 상담유형에 대한 고찰. 의료정보학회 제7차 학술대회, 221-229, 1993
11. 송우철 : 의협 정보통신망의 운영현황. 제1차 대한의학협회 정보통신망 학술대회, 48-50, 1994
12. 심봉석 : 의학계 컴퓨터통신의 활용: 의사전용 BBS "Med-Info" 운영 분석. 대한의료정보학회 제7차 학술대회, 234-246, 1993
13. Hassett M, Lowder C, Rutan D : Use of computer network bulletin board systems by disabled persons. Proc Ann Symp Comput Appl Med Care, 151, 1992
14. D'Alessandro MP, Ackerman MJ, Sparks SM : Educational technology network: a computer conferencing system dedicated to applications of computers in radiology practice, research, and education. J Digit Imaging 6(4): 237-40, 1993
15. Russin MM, Davis JH : Continuing education electronic bulletin board system: provider readiness and interest. J Contin Educ Nurs. 21(1): 23-7, 1990
16. Kopf AW, Rigel DS, White R, Rosenthal L, Jordan WP, Carter DM et al.: DERM/INFONET: a concept becomes a reality. J Am Acad Dermatol. 18(5): 1150-7, 1988
17. Hamrick CF : CompuServe New Member Guide. CompuServe, Columbus, OH. 56, 1994
18. Homan JM : End-user information utilities in the health sciences. Bull Med Liber Assoc. 74(1):31-5, 1986
19. Burks C, Cinkosky MJ, Fischer WM, Gilna P, Hayden JE, Keen GM, et al.: GenBank. Nucleic Acids Res. 20 Suppl: 2065-9 1992
20. Woychik RP, Wassom JS, Kingsbury D : TBASE: a computerized database for transgenic animals and targeted mutations. Nature 363: 375-76, 1993
21. Derfler FJ, Freed L, 유병국 역: How networks work. Ziff-Davis Press 가납사, 서울. 189-193, 1994
22. Hunter B : Linking for learning: Computer and communications network support for nationwide innovation in education.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and Technology, 1(1)23-34, 1992